

01 교회소식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해 맛있는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서로 돌아보며 부족함을 채워 위도가 되어주는 따뜻한 우리 교회.

02 생명의 말씀

총성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 주 안에서 총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과 신뢰를 받으며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의 일꾼 된 자격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일꾼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04 간증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돼요”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다시 태어난 벨기에 기 프리돔 성도와 온전한 심일조의 축복을 체험한 박선진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14호 2015년 11월 2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의 행복을 느껴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비롯, 구제 및 장학금 전달, 재능기부 등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담은 김장을 교회 내 구제 가정들 비롯, 인근 여러 기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 1,300여 가구에 전달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지난 11월 18~19일 '제18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교회 뒷마당에서 여선교회 총연합회 주최로 있었다.

배추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 성도가 직접 재배한 것으로, 자신의 손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화상을 치료받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매년 수천 포기를 찬조하고 있다. 배추를 나르고 절이는 교회 직원들, 새벽부터 장바 온 각종 야채와 양념으로 먹음직스럽게 버무리는 여선교회 회원들의 사랑으로 맛갈스런 김장이 완성됐다.

알맞게 절인 배춧잎 사이사이에 빨갛게 물든 양념 속을 듬뿍담 채워 넣어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김장은 11~12kg 박스로 포장되어 교회 내 구제 가정과 신대방 2동 주민센터,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을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 1,300여 가구에 전달됐다.

신대방 2동 주민센터 이강혁 동장은 “만민중앙교회에서 항상 쌀을 보내 주시고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정성이 깃든 김장도 손수 담가 주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고마워합니다. 좋은 재료와 양념으로 가정에서 먹는 김치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받는 분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박찬근 원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사랑의 김장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장님과 성도님들께 매우 고맙고, 김치 맛이 월등히 좋아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구제에 힘써왔다. 구제부에서는 매월 첫째 주 교회 내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성도 천여 가정에 기본 생활보조비 및 쌀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학부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학교 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초·중·고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모습을 본받아 실업인선교회와 청·장년층은 물론 학생들까지 곳곳에서 서로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구제위원회 관계자는 “성도들의 구제 헌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가고 계시지요.”라고 말했다.

한편,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의 행복을 맛보는 성도들도 있다. 학생주일학교에서는 주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과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진학, 진로 상담, 논술 지도 등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나누며 섬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도 참여하여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와 멘토링으로 학업 성적 향상을 돕고 있다.

또한 방학 때에는 관련 분야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강사로 나서 수학, 영어 특강을 하고 있으며, 방송 분야 일꾼들이 방송부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기부가 이뤄지고 있다.

학생주일학교 교장 이재정 전도사는 “성도님들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이 학생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키워주는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멘토링,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조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성도들의 장례 절차를 돕고 있으며, 교정복지선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재소자들을 위한 행사를 갖고 있다. 또 미용인선교회에서는 매월 노인복지시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주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만민 성도들의 겨울은 따뜻하고 평안하다. 사랑과 선행으로 심은 다비대를 죽음에서 되살려 주신 것처럼(행 9:36~40) 사랑과 선행, 구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도 응답과 축복으로 기쁨을 더해 주시길 기도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충성의 열매

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백성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자 하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역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합니다(롬 9:3).

이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분야를 담당하든지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넘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마음에 할렐하며 진리 안에서 충성

만일 범죄 조직에 들어가 목숨 바쳐 헌신했다고 그 사람을 충성되다 하지 않습니다. 선과 진리 속에서 충성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 다해 이뤄 드린다는 뜻이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을 철저히 죽이고 성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힘을 다해 마음에 할렐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나 직분을 맡아 감당한다 해도 성결을 함께 이뤄가야 충성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의 연단이 있어도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지요. 반면에 마음의 할렐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떤 미혹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나중에는 사명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죄악을 벗어 버리는 영적인 충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며, 성결 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큰 상급으로 쌓입니다.

예를 들면, 봉사를 해도 서로 간에 화평을 깨면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오히려 상급이 깎입니다. 하지만 화평 가운데 서로 섬기며 선과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3. 주인의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충성

만일 주인이 종에게 집안 청소를 시켰는데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했다면 충성스러운 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심을 좇아 하는 것이기에 언제든지 주인의 뜻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라면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충성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윗분의 마음에 맞는 순종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성경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열을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였습니다(잠 25:13). 맡은 분야에 열심을 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한다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의 친척이요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이 연단받던 시절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도 지혜롭고 용맹하여 그 곁을 지키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편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다윗의 뜻을 어기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기에 앞서 주 안에서 윗분의 의중에 맞춰 일할 수 있어야 참된 충성이라 할 수 있지요.

4. 자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충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칭찬하셨습니다(민 12:7).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관련된 모든 분야에 두루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받으면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별한 사명이 없어도 각종 모임에 속한 회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양 떼로서, 일꾼과 직분자로서, 가정, 직장,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분야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충성해야 하지요.

주 안에서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 해도 모든 분야에서 영의 마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로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그 입장을 생각하기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모든 분야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모임에 함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음을 모아 주며 어찌하든 힘이 되려고 하지요. 이렇게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온 집에 충성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주님의 피값인 영혼을 사랑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의 열매는 무엇이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서 칭찬과 신뢰를 받으며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사명 이상을 감당하는 충성

만일 급여를 받는 일꾼이 그 충성 됄을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였다 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 넘치게 감당하여야 하지요.

진정 충성한다면 ‘급여를 받은 만큼은 해야지’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나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노력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31~32).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자녀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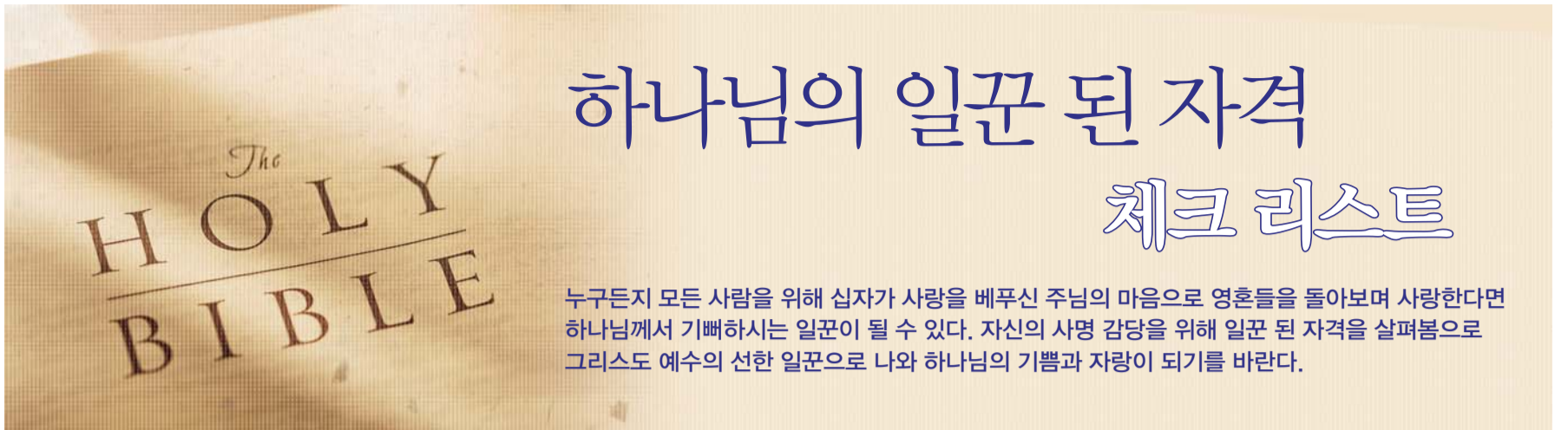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하나님의 일꾼 된 자격 체크리스트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보며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 일꾼 된 자격을 살펴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나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 >> 쉬지 않고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전 4:20). 만일 하나님의 일꾼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없으니 원수 마귀 사단의 계계를 파할 수 없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엡 6:12).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늘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다.

둘 >>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가?

예수님께서 사망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인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오락을 즐기거나 물건을 사고파는 등 매대하지 않으며 애경사로 인해 주일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셋 >>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 원하시되 공의의 하나님이기때문에 영계의 법칙대로 믿음으로 심을 때 축복해 주신다. 특히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생활은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다.

따라서 십일조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고 가장 먼저 드려야 하며,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 '온전한 십일조'란 단지 급여나 현금 수입의 십일조만이 아니라 선물이나 식사 대접 등 모든 수입에 대해 드리는 것이다.

넷 >>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불같이 기도하며 죄의 성질까지도 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만일 누군가를 판단, 정죄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다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녕 마음을 찢으며 중심에서 자복하고 명심했는데도 반복된다면 작정기도나 금식기도를 해서라도 그 죄의 성질을 빼내야 한다. 이처럼 부단히 노력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룰 수 있다.

다섯 >> 희생하고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질서를 좇아 순종하여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마 12:30).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은 물론 맡겨진 일 이상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다. 따라서 '온 집에 충성'이란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 즉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 직장에서도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 정성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희생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여섯 >> 사랑과 덕으로 많은 영혼을 품고 있는가?

사랑과 덕은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이다.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생명을 주고 심령을 변화시키며, 부모의 마음처럼 영혼들을 항상 마음에 둘 수 있다. 또한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고 포용해 줌으로 어떠한 사람과도 걸리지 않으려면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은 매사를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서 함께 있으면 쉬움 얻고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인다.

일곱 >>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이 있는가?


리더십이란 집단 활동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만족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머린 사람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합당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 곧 지도력, 통솔력,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지도력은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보다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인지,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여덟 >>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영혼들을 섬기는가?

겸손이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신앙이 성장하여 영의 세계를 체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달으며, 자신이 알고 체험한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우치니 모든 이론과 생각의 틀, 상식 등이 깨어진다.

이렇듯 낮아진 마음이 되면 상대의 티나 허물이 보이지 않으며, 설령 보인다 해도 오히려 기도해 주며 이해하게 된다. 또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므로 좋은 점은 열심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아무리 큰 권세가 주어지지 임의로 그 권세를 휘두르지 않으며 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



2015
HAPPY
WINTER
MERRY
CHRISTMAS
11/29 ~ 12/5

■ 일곱교회 15-19 ■ 지옥 12-16
■ 요한일서 강해 2-8 ■ 신령
■ 창세기 강해 61-65
■ 요한계시록 강해 97
■ 공부잘하는 비결 11
■ 마음발을 개간하자 1-5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4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육적인 사랑 1 (이수진 목사)
■ 지혜 1 (이미영 목사)
■ 의와 틀 속에 악 (이미경 목사)
■ 기도 6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18 (신동초 목사)
■ 열재앙 21 (정구영 목사)
■ 두루마기를 빼는 자 (김승신 전도사)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7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3
■ 창조와 과학 18 ■ English 11
■ 내 마음의 천양 22 ■ 옛날 옛적에 1
■ 모두 드려요 39 ■ 즐거운 요리 5

해외성회 및 교육

■ 러시아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8
■ 화상 [시즌2] 7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기 프리덤 성도 (61세,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2014년 5월, 파브리스 플랑드르 집사님의 전도로 에노만민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에 매우 놀라웠지요.

그러던 중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 4월부터 에노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삶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막내 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가정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원망하던 제가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에노만민교회에서 GCN 녹화방송으로 참석한 서울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불어판)을 읽은 뒤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성경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들이 명쾌하게 풀렸고, 천국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류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더욱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회장님의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된다’는 말씀은 제 삶의 모토가 되어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저는 피곤을 자주 느끼며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밤에는 한 시간마다 깨어나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매 주일 녹화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VOD를 통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잠자기 전에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였지요.

그러던 10월 말, 당뇨 수치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 성전 관리 봉사도 교회를 섬기며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속눈썹 뷰티숍을 운영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예전 설교를 다시 듣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일조는 수입에서 먼저 구분하여 드려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수입을 제 임의대로 먼저 필요한 곳에 사용한 뒤 한 달 수입을 계산하여 십일조를 드렸지요. 월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었고, 나름대로 십일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온전한 십일조에 대해 밝히 깨우친 후, 그 다음날부터 실천하였습니다. 매일 소득의 십일조를 구분해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드렸더니 그때부터 눈에 필 정도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곳에 무리하게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사심을 발견해 회개하고 버리기를 힘쓰며 감사하였지요. 그랬더니 큰돈을 들이지 않

고도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5월 말, 지인의 소개로 월세 3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탈 슝 안에 작은 평수의 공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슝들은 매월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딸린 점포라 따로 저의 슝만 홍보하는 간판도 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시술을 받고 간 후 흡족해하며 지인들을 소개해 주었고, 인터넷에 후기까지 올려 준 것입니다. 이후 매일매일 예약이 찼고,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십일조 현금도 30~40만 원 드렸는데, 바로 그달부터 두 배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기도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었기에 저는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받지 않고 최대한 일을 빨리 마친 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늦은 시간부터 잡히던 예약이 차츰 아침 일찍부터 되면서 하나님께서 수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선교하고 구

제하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 저도 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정으로 찬조하고 구제하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듯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물론, 제 마음 안

에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며 나누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셨지요.

작은 변화의 행함도 기뻐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작은 가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여호수아봉사대 대원으로 주일마다 즐겁게 국수 봉사를 하는 박선진 집사 (32세, 5칭년선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밭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2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2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해례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산로 22, 안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